

임실군 올해 공모사업 '순항'

전년대비 총 사업비 196% 증가... 치즈마을 등 100억원 14건 선정

임실군이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각종 공모사업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각종 공모사업에 총 14건 선정돼 총 사업비 154억원의 확보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3건, 작년 총 사업비 52억원에 비해 196% 증가한 수치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00억원 △임실N나물천지 조성사업 20억원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8억8천만원, △발자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0억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3억원 등이다.

군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등 지휘부와 담당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

군은 6월 공모사업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청한 사업들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에 발표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과 분석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진두 군수권한대행은 "5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 만큼 6월에도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동향 파악을 적극 나서는 등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달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임실 만들기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2019년 국가예산 확보 1차 성적표 '우수'

문화관광 분야 118억 등 국가예산 1,076억 반영

남원시 2019년 국가예산 확보 1차 성적표가 나왔다.

4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2019년 국가예산은 작년대비 300억 증가된 1,207억 규모 사업예산을 요청하여, 1,076억이 부처예산으로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76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매달 중앙부처 일제출장, 대책 보고회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남원시 문화관광 국가예산 반영 신규 사업으로는 ▲야야 유류리와 두라리 고분군 정비 사업 28억, ▲황산대

첩비지 정비 2.1억, ▲지리산 산악자전거길 인프라 구축 2.3억, ▲허브밸리 전망대 및 쉼터인 설치 7.5억, ▲광한루원 주변 전통가 조성사업 29억 등이 있으며,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22억,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 17억 등이 부처예산으로 반영되었다.

옛다솜 이야기원과 김병중 미술관, 합파우 소리체험관, 천문대, 춘향테마파크 등을 벨트화 하고 남원 광한루원과 광한루원 주변 불거리를 연계하여 남원을 체류형 관광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

한 결과다.

이와 함께 남원읍성 복원사업, 중앙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 강점기 훼손 문화재 보존과 역사적 상징 복원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한다.

이밖에 ▲중앙공원 조성사업 20억, ▲도시경관 개선 48억, ▲체육시설 20억,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농·산촌 환경 개선분야 318억, ▲특화작목 전문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분야 128억, ▲위험지구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 108억, ▲하천 정비사업 42억, ▲하수정비 196억 등도 각각 부처예산에 반영되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이루어 갈 것이라 보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기관장 참배가 잇따라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장포진 호국영령의 숭고한 위훈을 기리는 현충탑 및 묘역에 기관장 참배가 줄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참배행사는 지난 1일 NH농협은행 김장근 전북본부장과 박병철 노조위원장, 김천기 남원세무서장, 김상훈 새만금환경청장,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 전형규 전북지방조달청장이 다녀갔으며, 4일 김택수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봉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도지부장, 윤종화 전주기전대학 부총장이 현충탑 참배에 나섰다. 5일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 노병필 전주세관장,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 김철홍 익산지방국토관리



청장, 송인택 전주지방경찰청장, 박정돈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삼권역부문이사, 장영달 우석대 총장, 최강성 전북은행노조위원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7일 내영희 국민연금공단 북지이사, 박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이 예정되어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관광을 매력있게' 올해 관광사업 빅4 추진

체계산 국내 최장 구름다리·수체험센터 등

순창군의 관광기반을 한층 매력 있게 만들 대형 사업들이 올해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일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 가장 주목받는 관광정책 4가지는 270m 국내 최장 체계산 구름다리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과, 동굴형체험관·수체험센터 건립, 강천산아간명소화 사업이다. 섬진강뷰라인 연결사업은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에 위치한 체계산 중턱 75~90m 지점에 270m 길이 구름다리와 산책로, 모험장대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6월중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국비 34억을 포함해 68억원이 투자되며 내년 3월이면 정식 개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 설치한 진안 구름산 구름다리 100m와 지난해에 설치된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150m, 강원도 원주 출렁다리 200m 등을 넘는 길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굴형체험관·수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순창의 대표관광지인 강천산 관광의 다양성을 넓혀주는 사

업이다. 특히 강천산유용온천수를 활용한 다양한 힐링관광 체험시설을 만들어 힐링순창 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북돋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체험센터는 음용 온천수 등 자원을 활용해 예방 차원의 다양한 건강체험프로그램을 관광화 하는 사업이다. 90억원을 투자해 온천치유 누리실, 스파체험실, 테라피실과 온천광장, 족욕장 아외홀, 족욕 산책로 등이 만들어 진다. 동굴형체험관은 24억원을 투자해 동굴이라는 독특한 공간형태를 활용 순창 온천수의 신비감을 부각시킨다. 치유의 샘, 게르마늄 치유공간, 족욕장 등이 들어서며, 내부에 안개 분수는 물론 천정에 경관 조명등을 설치해 동굴의 신비한 느낌을 살릴 계획이다.

강천산아간명소화사업은 강천산의 공간적 개념을 야간관광자원화 하는 특색있는 사업이다. 야간 관광객 유치로 1박 2일 체류형 관광 시스템 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예촌 조깅녀 살풀이 공개강좌

남원예촌 조깅녀살풀이명무단이 '조깅녀 살풀이 공개강좌' 수강생을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무료로 18일 진행된다.

조깅녀전통춤보존회에서는 '조깅녀살풀이명무단' 개관 이후 진행된 조깅녀살풀이 정기공연과 더불어 조깅녀 살풀이에 무료공개강좌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

무료공개강좌는 15일까지 선착순 접수 중이며,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춤을 처음 접하는 시민도 배울 수 있도록 전통춤의 기초이론, 조깅녀 살풀이 기초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접수는 남원예촌관리사무소(남원시 관안북로 20)로 방문하거나, 전화(620-5650)로도 접수 가능하다.

우리나라 살풀이춤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깅녀 명무는 1923년 남원에서 태어나 1929년경 궁중에서 춤을 췄던 이장선 명인으로부터 승무와 검무를 배웠고, 1931년 제1회 춘향제부터 1941년까지 참여해 춤을 선보였으며, 승사교 완공식 등에 출연하였다. 이후 국립민속국악원, 서울 페스티벌, 국립국악원 등의 무대에 올랐으며, 현재는 조깅녀전통춤보존회에서 이를 계승해 지속되고 있다.

조깅녀살풀이명무단은 예촌조깅녀 명무의 생전거주지를 복원한 건물로 조깅녀살풀이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올해 3월 31일 개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첫삽

8월말쯤 신축 완료...연간 250톤 생산 농가에 공급

남원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고질적인 축산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농업기술센터내 사업비 7억2,000만원을 들여 396.24㎡ 규모로 조성된다.

미생물배양센터는 올 5월부터 착공하여 8월말쯤 신축을 완료하고 미생물배양에 필요한 멸균배양기, 저장탱크 등 장비를 구축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연간 250톤의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센터에서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토양개량 및 양분공급을 좋게하는 고초균 ▲작물 면역력 증가와 소화 흡수율을 증진시키는 유산균 ▲가축의 면



역력 증가와 사료기호성 증진에 좋은 효모균 ▲축산악취 및 유해가스 제거에 효과 있는 광합성균 ▲암모니아 분해와 악취저감 효과가 높은 질화균의 5종이며 각종 실험배양을 통해 기능성 미생물 등 종류를 늘릴 계획이다.

이환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병해충방제, 생육촉진 특히 축산농가에서 악취저제, 사료효율을 증진 등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